

파트너 및 후원사

Partners & Sponsors

파트너 PARTNERS



MSC 해양관리협회의
Marine Stewardship Council

스폰서 SPONSORS



(주)이앤에이
TOTAL MANAGEMENT SERVICES

영화의전당



SONITE

175planet

SURFGYM
SURFING ACADEMY



KOREA INTERNATIONAL OCEAN FILM FESTIVAL

2022 국제해양영화제

2022.7.28~7.31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MSC 해양관리협의회
Marine Stewardship Council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주)이앤에이
TOTAL MANAGEMENT SERVICES

영화의전당



SURFGYM
SURFING ACADEMY



SONITE

175planet

CONTENTS

- 5 국제해양영화제 소개 Introduction
- 6 위원장 인사말 Welcome Message
- 7 테마 Theme
- 8 운영시간표 Timetable
- 9 상영작 소개 Screenings
- 10 개막작 Opening Film
- 11 폐막작 Closing Film
- 12 푸른바다로 부터 Message from the blue
 - 13 INTO THE BLUE: The Wonders of The Coral Triangle 푸른 낙원 속으로
 - 14 Back to the Sea 다시 바다로
 - 15 Twist and Spin 꿈꾸는 돌고래
- 16 바다의 언어로 세상을 본다면 Look into the world from the Ocean
 - 17 It's Time to Listen 고래와 팬데믹
 - 18 The Witness is a Whale 고래의 증언
- 19 바라던 바다 Dreaming of the sea
 - 20 Planktonium 플랑크토니움
 - 21 The Last Vaquita 바키타 돌고래를 보셨나요?
 - 22 The Blue Forest 바다의 아마존, 켈프숲
- 23 항해의 기록 Sail away
 - 24 Selma 셀마
 - 25 STURMFART-The World's Toughest Sailing Race 방데글로브:세계에서 가장 터프한 항해

26 그린웨이브 Green Waves

27 Savage Waters 세비지 워터스

28 영 오션 러버스 Young Ocean Lovers

29 My Journey Across the Ocean 투미의 항해일지

30 Lionfish: Ocean Murder Hedgehogs 바다의 팜프파탈, 쓸배감펍

31 Hungry Jellyfish 해파리의 공습

32 Deep Look: Sea Slugs Scrub Seagrass by the Seashore 민둥맨둥 바다민달팽이

33 Deep Look: Starfish Gallop With Hundreds of Tubular Feet 바다의 포식자, 불가사리

34 지속가능한 바다 MSC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sea, MSC

35 The Forest Stands Tall 숲의 기억

36 Veins of an Island 위기의 섬

37 The Ocean Solution 기후를 바꾸는 바다농장

38 Coding for Crayfish 코딩으로 바다를 낚다: 아발로비

39 국제해양영화제 초이스 KIOFF's Pick

40 CODA 코다

41 The Island 더 아일랜드

42 Mud Flat 갯벌

43 나와 만나는 바다 Facing with my self at the sea

44 I Just Went for a Swim 나는 오늘도 바다를 꿈꾼다

45 ICEolation 어느 커플의 자발적 남극표류기

46 Tess Felix: Portrait Artist 테스 펠릭스: 쓰레기로 그린 초상화

47 Resurrection Artist 바다로부터, 거듭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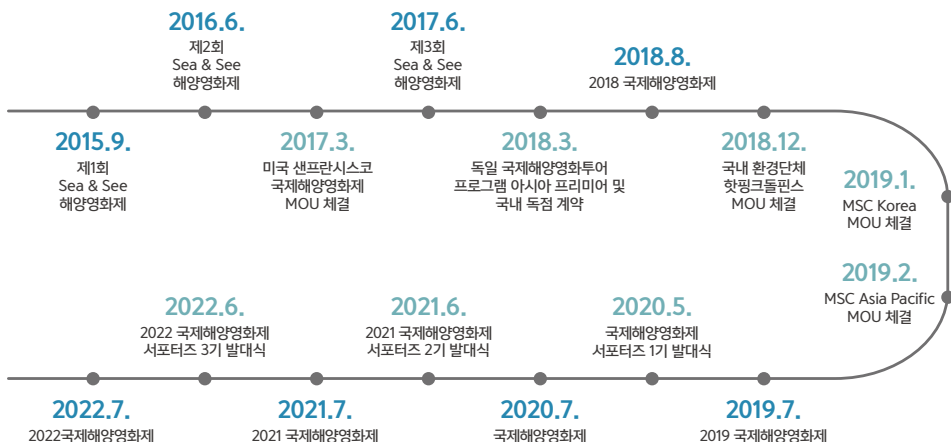
영화를 통해 바다를,

국제해양영화제는 국내외 다양한 해양영화상영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를 위한 푸른 바다를 꿈꿔보고 싶습니다.

Through the films, we see the ocean
Through the ocean, we see the world.

Korea International Ocean Film Festival dreams of the healthy blue ocean
for every creature living on this planet, including all of us.

HISTORY



‘알면 사랑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은 물론 다른 생명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되면,
결국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사랑하면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삶과 함께해왔지만,
여전히 바다는 탐구해야 할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곁에 늘 함께하고 있는 바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때,
그 사랑이 바다를 살리는 작은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바다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국제해양영화제를 통해
미지의 세계, 바다가 선물하는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There is a saying, 'You'll love it more when you know more about it.
Knowing about oneself and other lives will eventually drive you to fall in love,
and falling in love will lead you to take action.
Since the beginning of time, humans have inhabited the ocean,
but it has yet to be fully explored.
When we understand the sea that we are always with,
we hope, that love will lead to small steps to save the ocean
Through the International Ocean Film Festival,
which tells the story of the ocean and its people,
we look forward to sharing a special moment
presented by the ocean, a world unknown.
Thank you very much.

국제해양영화제 운영 위원장 조하나

KIOFF Executive Director HANA JO



“지속 가능한 삶의 시작”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
인류의 생존은 바다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물고기를 비롯한 해산물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17%를 담당하며
호흡에 필요한 산소도 50% 이상이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바다와 바닷속 수많은 해양 생물들은 대기 중의 뜨거운 열기와 탄소를 흡수해
순환 활동을 도와주며, 환경파괴로부터 지구를 회복시켜줍니다.

성장을 멈추지 않는 인류와 운명을 같이한 바다는 지금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고갈,
육지로부터 흘러들어온 각종 폐기물과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삶은
바다로부터 시작된다는 인류생존의 이야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Where Sustainable Living Begins”

The ocean covers more than 70 percent of the Earth!
The survival of human race depends on the fate of the ocean.

Fish and other marine life account for 17 percent of the animal protein
necessary for human survival and over 50 percent of oxygen needed
for respiration also comes from the sea.

The ocean and countless marine organisms help cyclic processes
and recovery of nature by absorbing heat and carbon in the air,
and restore our planet from environmental destruction.

The ocean has shared the fate of mankind that never stopped growing
and now it is suffering from the depletion of fishery resources in the grip of
wastes and microplastics from the land.

The story of human survival that sustainable living
starts from the ocean. Let's talk about it now.

운영시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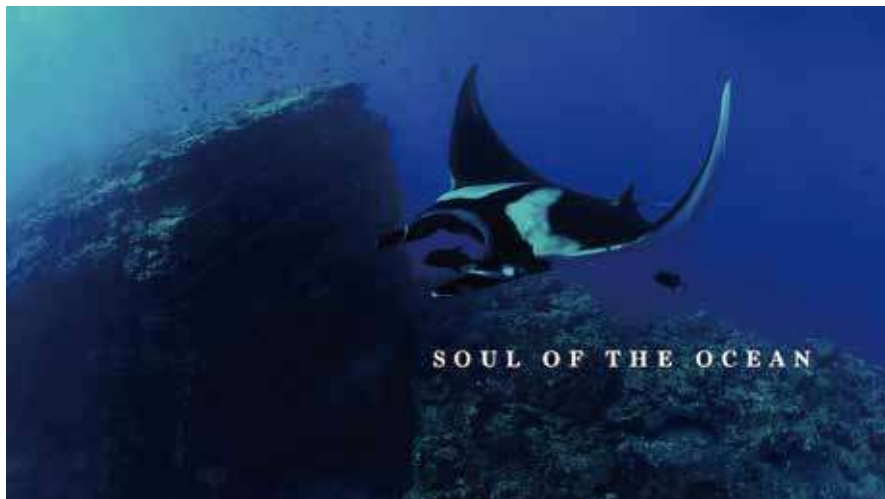
Timetable

28.(목)	29.(금)	30.(토)	31.(일)
18:30~21:00 중극장 개막식 개막작 -풍요의 바다(78min) Soul of The Ocean	13:00~14:00 시네마테크관 푸른바다로 부터 (Message from the blue) -Back to the Sea 다시바다로 (6min) -INTO THE BLUE: The Wonders of The Coral Triangle 푸른 낙원 속으로 (50min) 15:00~16:10 시네마테크관 바다의 언어로 세상을 본다면 (Look into the world from the Ocean) -It's Time to Listen 고래와 팬데믹 (7min) -The Witness is a Whale 고래의 증언(52min) 17:00~18:10 시네마테크관 바라던 바다 (Dreaming of the sea) -Planktonium 플랑크토니움 (15min) -The Last Vaquita 바키타라 돌고래를 보셨나요?(13min) -The Blue Forest 바다의 아마존, 켈프숲(35min) 19:00~21:00 시네마테크관 항해의 기록 (Sail away) -Selma GV 셀마: 지구의 끝, 극점을 찾아(92min)	11:00~12:00 시네마테크관 푸른 바다로부터 (Message from the blue) -Twist and Spin 꿈꾸는 돌고래 (50min) 12:00~12:30 시네마테크관 영 오션 러버스 (Young Ocean Lovers) -My Journey Across the Ocean 투마의 항해일지(4min) -Lionfish: Ocean Murder Hedgehogs 바다의 팜프파람, 쓸매감랭(2min) -Hungry Jellyfish 해파리의 공습(4min) -Deep Look: Sea Slugs Scrub Seagrass by the Seashore 민동맨둥 바다민달팽이(4min) -Deep Look: Starfish Gallop With Hundreds of Tubular Feet 바다의 포식자, 불가사리(5min) 13:00~14:30 시네마테크관 지속가능한 바다 MSC GV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sea, MSC) -Veins of an Island 위기의 섬(8min) -The Forest Stands Tall 숲의 기역 (2min) -The Ocean Solution 기후를 바꾸는 바다농장 (14min) -Coding for Crayfish 코딩으로 바다를 낚다: 아발로비(30min)	11:00~12:30 시네마테크관 국제해양영화제 초이스 KIOFF'S PICK 공모작 상영 -Mud Flat GV 갯벌(70min) 13:00~14:30 시네마테크관 나와 만나는 바다 GV (Facing with my self at the sea) -I Just Went for a Swim 나는 오늘도 바다를 꿈꾼다(18min) -ICEolation 어느 커풀의 자발적 남극표류기 (28min) -Tess Felix: Portrait Artist 테스 펠릭스: 쓰레기로 그린 초상화(8min) -Resurrection Artist 바다로부터, 거듭나다(22min) 15:00~17:00 시네마테크관 국제해양영화제 초이스 (KIOFF'S Pick) -The Island GV 더 아일랜드(85min)
7/25.(월) 20:00~21:40 영화의전당 야의 극장 특별상영 그린웨이브 (Green Waves) -Savage waters GV 세비지 워터스(93min)		16:00~18:30 시네마테크관 국제해양영화제 초이스 (KIOFF's Pick) -CODA 코다(111min) GV 19:00~21:00 시네마테크관 항해의 기록 (Sail away) -STURMFÄHRT-The World's Toughest Sailing Race GV 방테클로브: 세계에서 가장 타프한 항해(90min)	18:00~20:00 시네마테크관 폐막식 폐막작 -Dusk Stone 다크스 스톤(87min)

상영작 소개 Screenings

풍요의 바다

Soul of the Ocean



Howard Wesley Hall

78 min | 2021 | 다큐멘터리 | 컬러 | 미국 | 전체관람가

7.28.(목) 18:30 중극장

세계적인 수중전문촬영가, 하워드홀의 10년 동안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작품. 필리핀, 캘리포니아, 멕시코 등에 살고 있는 경이롭고 풍요로운 해양생물들을 4K 촬영으로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한 다양성, 상호의존적인 종의 공동체를 통해 인간과 바다의 조화로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Soul of the ocean explores the complexity of ocean ecosystems. Spectacular underwater cinematography reveals communities of interdependent marine species and highlights the critical role biodiversity plays in maintaining a healthy ocean. Every species has a part to play. As humans become increasingly intimate with the ocean, we discover that we have a huge part to play as well.

더스크 스톤

Dusk stone



Iván FUND

87 min | 2021 | 드라마 | 컬러 | 아르헨티나, 칠레, 스페인 | 12세이상관람가

7.31.(일) 18:00 시네마테크

그레타와 브루노의 어린 아들은 일 년 전 바다에서 실종되었다. 슬픔에 잠겨있는 부부가 머무르는 여름 별장에 친구가 찾아오고, 뉴스에서는 기후 변화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다에 괴물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돈다.

감독 이반 폰드는 영화의 스토리를 전달하는데 있어 공기의 흐름을 포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어린 아이의 눈에만 비칠 법한 상상 속의 존재를 이용해, 자식을 잃은 부모가 가슴 저미는 상실을 극복하는 과정을 조심스럽게 그려낸다. 현실과 환상, 단순함과 모호함의 경계를 넘나드는 연출은 특히 아름다운 풍경과 상반되는 음악을 사용함으로써 불협화음이 극대화된다. 종말이 다가온 듯한 세상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싹 틔우는 마지막 장면은 기이한 감동을 선사한다.

Just one year ago, Greta and Bruno's son mysteriously disappears from the waterfront.

The grieving parents are visited by a friend, the news issue warnings of environmental crisis, and rumors of a mysterious creature circulate among the locals. Iván Fund understands that storytelling in cinema is about capturing atmosphere. He has carefully crafted a mystical drama with fantastic elements, exploring this emotional process of overcoming trauma through empathy.

The tone is very simple yet intriguing, and the ambiguous line between reality and fantasy is highlighted by the unusual use of music, making contrast with the gorgeous scenery, leading to the aloof and discordant nature of the film. In the apocalyptic final moments, there is an odd mixture of bewilderment and hope.

푸른바다로부터

Message from the blue

푸른 낙원 속으로

INTO THE BLUE: The Wonders of The Coral Triangle



Robert Fonollosa

50min | 2021 | 다큐멘터리 | 컬러 | 스페인 | 전체관람가

7.29.(금) 13:00 시네마테크관

바다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산호 삼각지대.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산호종의 76%와 3천 종의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라자암팟, 술라웨시, 코모도 등 푸른 낙원이 눈앞에 펼쳐진다.

Located between the Pacific Ocean and the Indian Ocean, the Coral Triangle is often referred to as the global center of marine biodiversity. Home to hundreds of marine species, pristine coral reefs and some of the most colorful inhabitants of the ocean. Go deep into the blue around the Indonesian islands of Raja Ampat, Sulawesi, and Komodo and be mesmerized by stunning, up-close ocean beauty.

다시 바다로

Back to the sea



Jack Gordon

6 min | 2021 | 다큐멘터리 | 컬러 | 미국 | 전체관람가

7.29.(금) 13:00 시네마테크관

여성은 배를 탈 수 없다는 오랜 금기를 무너뜨린 폴리네시아 최초의 여성선장, 아우노포에 대한 이야기. 생존을 위해 고래잡이를 했던 과거와 화해하고, 통가 섬에 생태관광을 정착시키며 바다와의 새로운 관계 맺기에 나선다.

Unable to swim and afraid of the deep, Aunofo Havea Funaki began her seafaring life at age 25. Seventeen years later she became the first licensed female captain in Polynesia. As she reconciles and honors her father's whaling heritage, she is transforming how younger generations in Tonga relate to the sea through ecotourism instead of slaughter, "The whales connect us to our history"

꿈꾸는 돌고래

Twist and Spin



Peter Donovan Walker

50 min | 2021 | 드라마 | 컬러 | 바누아투 | 전체관람가

7.30.(토) 11:00 시네마테크관

남태평양, 바누아투 섬에서 공연됐던 연극을 각색한 작품. 바다와 더불어 살았던 섬 주민들은 기후변화를 겪으며, '지속 가능한 어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만 한다. 뮤지컬과 연극 요소가 혼합된 새로운 해양 영화를 즐길 수 있다.

This film is an adaptation of a stage play that toured coastal communities in the South Pacific island archipelago of Vanuatu in 2019. The play was a vehicle for conservation groups to bring attention, in a culturally relevant way, to local fishing issues concerning the local population. The film provides insight into an island society in a thoughtful and sometimes humorous manner.

바다의 언어로 세상을 본다면
Look into the world from the Ocean

고래와 팬데믹

It's time to listen



Louisa Gilbert

7 min | 2020 | 다큐멘터리 | 컬러 | 캐나다 | 전체관람가

7.29.(금) 15:00 시네마테크관

소리로 무리들과 소통하는 고래들은 비약적으로 늘어난 시추선 폭발음, 컨테이너 운반용 화물선, 크루즈 유람선의 프로펠러 회전음에 청각을 고문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전 세계 운송이 중단되자, 고래들의 즐거운 대화가 바다를 채운다.

수중 마이크로 채집된 고래의 노래를 통해 문명이 고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오르카랩의 새로운 시도를 담은 영상.

At OrcaLab, Paul Spong and his colleagues have documented killer whales functionally deafened by ship's noise that obscures the orcas' own sonar, essential for finding prey. Suddenly, COVID changed all that: shipping all but ceased, creating a baseline of natural sound levels and behaviors. Soon scientists may have evidence to motivate governments to better manage maritime transport, and protect the whales.

고래의 증언

The Witness is a Whale



Nick Dean, Cheryl Dean

52 min | 2020 | 다큐멘터리 | 컬러 | 오스트리아 | 12세이상관람가

7.29.(금) 15:00 시네마테크관

소비에트 연방과 일본의 고래 불법 포획의 비밀을 폭로하는 다큐멘터리. 최초로 공개되는 기록 영상과 숨겨진 문서 등을 통해 그 위험성을 고발한다. 멸종위기에 놓인 고래의 현실과 해양생태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담았다.

Through never-before-seen archival footage, hidden documents, and personal records, *The Witness Is a Whale* reveals the secret, illegal slaughter of hundreds of thousands of whales by the Soviet Union and Japan. This documentary also recounts the post-whaling recovery of whales and highlights their importance to the health of our oceans.

바라던 바다

Dreaming of the sea

플랑크토니움

Planktonium



Jan van Ijken

15 min | 2022 | 다큐멘터리 | 컬러 | 뉴질랜드 | 전체관람가

7.29.(금) 17:00 시네마테크관

바다에 서식하는 엄청나게 작은 크기의 유기체, 플랑크톤에 대한 몽환적인 여행기.

그들은 바닷속 우주를 유명하며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된다. 심해 해양 동물들의 소리를 수집하는 세계적인 사운드 아티스트, 야반 빈데른의 음악적인 해석도 빼놓을 수 없는 작품.

Planktonium is a short film by Jan van IJken about the unseen world of living microscopic plankton. It is a voyage into a secret universe, inhabited by alien-like creatures.

These stunningly beautiful, very diverse and numerous organisms are unknown to most of us because they are invisible to the naked eye. However, they are wandering beneath the surface of all waters around us and they are of vital importance for all life on earth.

바키타 돌고래를 보셨나요?

The Last Vaquita



Ed Harrison, Luke Ripley

13 min | 2021 | 다큐멘터리 | 컬러 | 영국 | 전체관람가

7.29.(금) 17:00 시네마테크관

눈 주위에 검은 원이 있어 바다의 판다로 불리는 바키타 돌고래. 멕시코 바다에만 서식하는 바키타는 계속해서 개체수가 줄어 멸종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영국에서 그래픽디자이너로 활동하는 형제는 국제해양생물보호단체, 시세퍼드로 부터 바키타와 관련된 실크스크린 작품을 요청받고, 멕시코로 향한다.

In the Gulf of California a small porpoise, the vaquita, which can only be found there, has been reduced to 15 animals. They are bycatch trapped in nets for an equally endangered fish, the totobua, captured for their bladders. Two British graphic design brothers were asked by the Sea Shepherd organization to create relevant silkscreen artwork. They decided to see the porpoise themselves, came to Mexico- and make this film for positive change.

바다의 아마존, 켈프숲

The Blue Forest



Philip Hamilton

35 min | 2021 | 다큐멘터리 | 컬러 | 영국 | 전체관람가

7.29.(금) 17:00 시네마테크관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식물로 알려진 해조류 켈프(Kelp)는 세계 곳곳의 바다에서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에 의한 강한 엘니뇨현상으로 수온이 올라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켈프숲. 해양생명의 보고, 켈프숲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과학적인 노력들을 담고 있다.

Kelp forests are one of the most vital ecosystems in the world, sequestering more carbon than equivalent areas on land. In Northern California, more than 97% of kelp has been lost due to climate change. In fact, seaweed and kelp forests around the globe are being threatened by human activity and the global race is on to protect them. Learning from scientists from around the world will help reverse this devastating trend.

항해의 기록

Sail away

셀마: 지구의 끝, 극점을 찾아

Selma



Maciek Jabłoński

92 min | 2020 | 다큐멘터리 | 컬러 | 폴란드 | 전체관람가

7.29.(금) 19:00 시네마테크관

11명의 선원을 태운 폴란드의 작은 요트는 2015년, 그 누구도 도전한 적 없는 위험한 여행을 시작한다. ‘셀마’는 모험을 향한 열정, 자연에 대한 존중과 사랑, 세계탐험에 평생을 바친 사람들에게 바치는 감사이자, 현존하는 마지막 야생 대륙, 남극 대륙에 대한 찬사이다.

In the Antarctic summer of 2015, the Polish yacht, Selma, headed south from Hobart, Tasmania, its goal: to get closer to the geographical South Pole than any other sailing vessel ever had. The 11 crew members were picked by experienced co-captain and organizer, Piotr Kuznar, who says of them: “On this kind of trip, you need (people) good at cracking jokes” You will see why by film’s end.

방데 글로브 : 세계에서 가장 터프한 항해

STURMFAHRT – The World's Toughest Sailing Race



Philipp Grieb

90 min | 2021 | 다큐멘터리 | 컬러 | 독일 | 전체관람가

7.30.(토) 19:00 시네마테크관

극한의 요트대회로 불리는 방데 글로브(Vende Globe), 기계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바람과 조류에 몸을 맡긴 채 홀로 세계를 일주하는 경기다. 프랑스 레 사블 돌론을 출발해 남극을 돌아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왕복 4만5000km 코스로, 약 3개월이 소요된다. 2020년 방데 글로브 대회에 참가해 5위를 기록한 보리스 헤르만의 극한 체험기.

The rules are simple but merciless: sail around the world alone, nonstop and unassisted, where mishaps have grave consequences. It's the ultimate test of endurance, self-reliance and grit. This is German skipper Boris Herrmann's firsthand chronicle of his daring 2020 Vendee Globe campaign. Using footage captured onboard, he struggles against treacherous seas, remote isolation, constant threat, a myriad of hardships... and his own limits.

그린웨이브
Green Waves

세비지 워터스
Savage Waters



Michael Corker

93 min | 2022 | 다큐멘터리 | 컬러 | 프랑스 | 전체관람가

7.25.(월) 20: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19세기 해양서적에 나오는 거대한 파도를 찾아 떠나는 어드벤처 다큐멘터리.

세계 최대 파도타기 기록을 보유한 빅웨이브 서퍼, 앤드류 코튼이 여행에 합류하며 전설의 파도타기에 도전한다. 신화 속 파도를 찾아 떠나는 불굴의 용기가 빛나는 작품

A stunning and intimate portrait of modern adventurers as they follow clues left in a 19th century treasure-hunter's journal to find and ride a mythical wave in some of the most dangerous waters of the Atlantic.

영 오션 러버스
Young Ocean Lovers

투미의 항해일지

My Journey Across the Ocean



Madeleine Kelly Toomey

4 min | 2020 | 애니메이션 | 컬러 | 미국 | 전체관람가

7.30.(토) 12:00 시네마테크관

13살 투미는 가족들과 대서양, 지중해 등을 항해하던 중,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딴 섬에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넘쳐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2년의 항해경험을 바탕으로 투미가 직접 그려 완성한 애니메이션

A sophisticated animated short film based on a real-life, two-year family sailing adventure from across the Atlantic, the Mediterranean and through the Caribbean. As a first time filmmaker, Toomey sails to some of the most remote, uninhabited places on the ocean, only to discover that everyday plastics have found their way there – before her! By offering solutions on how to diminish our dependence on plastics, she returns to shore hopeful for our future.

바다의 팜프파탈, 쓸배감펍

Lionfish: Ocean Murder Hedgehogs



Sarah Baumann

2 min | 2021 | 애니메이션 | 컬러 | 미국 | 전체관람가

7.30.(토) 12:00 시네마테크관

사자 갈기를 닮은 화려한 지느러미로 '사자 물고기'라 불리는 쓸배감펍은 천적이 거의 없어 지중해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불린다. 매년 급속도로 늘어나 해양생태계를 어지럽히는 쓸배감펍에 대한 애니메이션 입문서

Your full attention will be needed for this fast-paced, information-dense animation primer about the invasive Lionfish in Atlantic and Caribbean waters. The prolific Lionfish decimate reefs and have few predators. Luckily, Lionfish are easily caught and are edible, even tasty.

해파리의 공습

Hungry Jellyfish



Sabrina Inderbitzi

4 min | 2021 | 다큐멘터리 | 컬러 | 스위스 | 전체관람가

7.30.(토) 12:00 시네마테크관

블랙워터 다이빙으로 잡아낸 해파리의 먹이사냥 현장. 블랙워터 다이빙은 야간 다이빙의 일종으로, 한밤중 깊은 바닷속에 불을 밝히면 낮에 볼 수 없던 진귀한 바다 생물들을 만날 수 있다.

한밤중에 벌어지는 해파리와 물고기의 추격전

Jellyfish are not so passive as they first appear. Their long poisoned tentacles need only to graze a passing fish to make it helpless prey, its digestion openly exposed to the camera.

민둥맨둥 바다 민달팽이

Deep Look: Sea Slugs Scrub Seagrass by the Seashore



Mike Seely

4 min | 2022 | 다큐멘터리 | 컬러 | 미국 | 전체관람가

7.30.(토) 12:00 시네마테크관

eelgrass sea hares는 얼룩말 줄무늬가 있는 게으른 젤리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sea slugs 종류들은 바다 생태계의균형을 유지하는 진정한 영웅이다. 그들의 놀라운 능력을 엿볼 수 있는 바닷속 취재 탐방기!

Eelgrass sea hares may look like lazy, zebra-striped spoonfuls of jello, but these sea slugs are actually environmental heroes. Their voracious appetite for algae helps keep underwater meadow ecosystems in balance—which is great news for sea otters.

바다의 포식자, 불가사리

Deep Look: Starfish Gallop With Hundreds of Tubular Feet



Josh Cassidy

5min | 2020 | 다큐멘터리 | 컬러 | 미국 | 전체관람가

7.30(토) 12:00 시네마테크관

귀엽고 화려해 보이는 불가사리는 사실 탐욕스러운 바다의 포식자. 무서운 번식력과 재생력을 무기 삼아, 가시로 뒤덮인 성게도 무섭지 않다! 수백 개의 튜브 피트로 움직이는 신비한 불가사리 취재탐방기!

They may look cute and colorful, but starfish are actually voracious predators. To sniff out and capture their prey, they rely on hundreds of water-propelled tube feet, each with a fiercely independent streak

지속가능한 바다, MSC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sea, MSC

숲의 기억

The Forest Stands Tall



Abbey Dias

2 min | 2021 | 다큐멘터리 | 컬러 | 미국 | 전체관람가

7.30(토) 13:00 시네마테크관

귀엽땅 위의 나무와 숲, 물속의 해조류... 우리 모두가 지구공동체로 연결돼 있다는 메시지를 아름다운 영상으로 전달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바다의 모습을 직접 찍어 완성한 작품

From kelp forests in the ocean to forests on land, lifeforms evolved together as ecosystems – where function and diversity are more than the sum of the parts. As the world changes rapidly, we must learn from nature and reflect on the strength of this diversity. Stunning cinematography in this film explores how the ocean is intertwined with our lives, and why we must protect it.

위기의 섬

Veins of an Island



Shireen Rahimi

8 min | 2021 | 다큐멘터리 | 컬러 | 미국 | 전체관람가

7.30(토) 13:00 시네마테크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무오레아섬 생태계 변화에 대한 이야기. 기후위기로 오염된 물은 바다의 산호초와 섬 주민들의 식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람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와 같은 존재, '물'에 대한 고찰.

Rain falls upon the island of Mo'orea in French Polynesia and weaves its way down, like blood through our veins, to accumulate in freshwater springs. Eventually the water makes its way to the ocean, but something in the water has changed, threatening the health of coral reefs and the local drinking water. A baffling and not yet understood issue in an island culture where water is life.

기후를 바꾸는 바다농장

The Ocean Solution



Darcy Hennessey Turenne

14min | 2021 | 다큐멘터리 | 컬러 | 미국 | 전체관람가

7.30(토) 13:00 시네마테크관

해조류는 인류의 미래 먹거리이자 지구를 지킬 탄소 흡수원으로 주목받으며 무한한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바닷물 공간을 수직으로 활용해 다양한 종을 생산하는 재생 해양 양식의 선구자, 브렌스미스를 통해 기후 위기의 해법을 모색 해본다.

Farming under the sea? Meet Bren Smith, the ocean farming pioneer whose vertical kelp and shellfish farms are transforming the way food is produced. He discovered a new method of restorative ocean farming, producing large quantities of nutritious food while fighting the climate crisis, cleaning the ocean, creating aquatic habitat, and sustaining his organic sea-fairing way of life.

코딩으로 바다를 낚다: 아발로비

Coding for Crayfish



Serge Raemaekers, Karen Logan

30min | 2020 | 다큐멘터리 | 컬러 | 남아프리카 | 전체관람가

7.30(토) 13:00 시네마테크관

효율적인 조업과 동시에 불법조업까지 방지할 수는 없을까?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아발로비’ (남아공 원주민 언어로 ‘물고기 잡는 사람’) 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어업의 희망을 보여준다.

David Shoshola has lived in Paternoster, a coastal fishing town north of Cape Town, for generations, fishing primarily for the abundant crayfish, or rock lobster. In spite of legal limits, in the 1950s poaching by gangs began to endanger both lobster populations and fisher livelihoods. To bring an end to it, Abalobi, a computer platform, was developed to trace where crayfish are caught and who catches them.

국제해양영화제 초이스
KIOFF'S PICK

코다

CODA



Sian Heder

111min | 2021 | 드라마 | 컬러 | 미국,프랑스 | 12세이상관람가

7.30(토) 16:00 시네마테크관

24/7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가족을 세상과 연결하는 코다 '루비'는 짝사랑하는 '마일스'를 따라간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기쁨과 숨겨진 재능을 알게 된다. 합창단 선생님의 도움으로 마일스와의 듀엣 콘서트와 버클리음대 오디션의 기회까지 얻지만 자신 없이는 어려움을 겪게 될 가족과 노래를 향한 꿈 사이에서 루비는 망설이는데...

As a CODA (Child of Deaf Adults) Ruby is the only hearing person in her deaf family. When the family's fishing business is threatened, Ruby finds herself torn between pursuing her passion at Berklee College of Music and her fear of abandoning her parents.

더 아일랜드

The Island



Anca Damian

85min | 2021 | 블랙코미디 | 컬러 | 루마니아, 벨기에, 프랑스 | 12세이상관람가

7.31(일) 15:00 시네마테크관

안카 다미안은 <나의 저승길 이야기>(2011), <매직 마운틴>(2015), <환상의 마로나>(2019) 등의 애니메이션으로 국내 외 관객들에게 이름이 널리 알려져있다. 최신작 <더 아일랜드>는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를 재해석한 포스트 모더니즘 뮤지컬로, 자유분방한 상상력, 풍부한 표현력, 현실에 기반한 환상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몰입도를 높인다. 원작과 달리 영화 속 로빈슨 크루소는 이민자, NGO 단체, 경비병들이 주둔하고 있는 외딴 섬에서 살아가는 의사로 등장한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설정된 독특한 배경 속에서 인종 차별, 난민 문제, 환경 오염 등의 범지구적 이슈들을 아름다운 노랫말과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파헤치고 고발하며, 이 번잡한 땅에서 살아가는 오만하고 편협한 인간의 외로움과 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The film is a surreal comedy based on a reinterpretation of Robinson Crusoe, speaking of current affairs through visual poetry and symbolism. The film is a colorful, poetic and funny musical fable.

갯벌

Mud Flat



Lee Hyeok

70min | | 드라마 | 컬러 | 한국 | 전체관람가

7.31(일) 11:00 시네마테크관

코로나 펜더믹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워진 시대.

동인천 화수부두란 곳에 치매걸린 엄마와 다리 저는 아들이 살고 있다.

아들은 풍선을 팔고 생활을 해나가는데, 시대상황 때문인지 풍선마저 팔리질 않는다.

극심한 생활고로 인해 모자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급기야 아들은 생을 포기하려는 마음까지 먹게 된다.

그러다 아들은 우연히 친구의 부탁으로 심부름을 하게 되는데..

심부름을 간 곳에서 삶의 한줄기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

Set in a small village in Dongincheon, the story follows an elderly mother suffering from Alzheimer's and her disabled son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The son tries to make their ends meet by selling balloons but things worsen to the point he wants to give up on life. One day, a friend asks for a special favor that sends him on a journey in which he finds a small glimmer of hope..

나와 만나는 바다

Facing with myself at the sea

나는 오늘도 바다를 꿈꾼다

I Just Went for a Swim



Adam Dostalek

18min | 2021 | 다큐멘터리 | 컬러 | 호주 | 전체관람가

7.31(일) 13:00 시네마테크관

30대 후반의 수영 선수, 로렌 티센도르프는 오랫동안 지속된 무기력증 극복을 위해 특별한 도전을 준비한다. 큰 파도와 조류, 상어가 자주 출몰하는 로드하우섬을 수영으로 횡단한다는 것, 여성 최초, 로렌의 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As a CODA (Child of Deaf Adults) Ruby is the only hearing person in her deaf family. When the family's fishing business is threatened, Ruby finds herself torn between pursuing her passion at Berklee College of Music and her fear of abandoning her parents.

어느 커플의 자발적 남극표류기

ICEolation



Sophie Ballagh, Ewan Blyth

28min | 2019 | 다큐멘터리 | 컬러 | 남극대륙 | 전체관람가

7.31(일) 13:00 시네마테크관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 대륙을 카약 하나로 횡단한 이완 & 소피 커플의 도전기. 극한의 상황에서도 빛나는 그들의 유대감과 평온함은 영하 30도의 추위를 녹인다. 스크린으로 전해지는 생생한 체험에 으슬으슬 몸이 떨려올지도

“We felt ready for anything, but we quickly realized the true meaning of being 'out there'.”
“Two adventurers undertake a self-supported sea kayak expedition through Antarctica's icy waterways. At once an exploration of solitude and partnership, they discover serenity within themselves, a strengthened bond between them and the shared joy of an immersive experience (and some new friends too)”

테스 펠릭스: 쓰레기로 그린 초상화

Tess Felix: Portrait Artist



Andrea E. Leland, Cynthia Abbott

8min | 2021 | 다큐멘터리 | 컬러 | 미국 | 전체관람

7.31(일) 13:00 시네마테크관

일반 유화처럼 보이는 초상화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플라스틱 조각들로 완성된 인물화이다. 플라스틱 조각들로 해양환경운동가, 지역리더들의 초상화를 만드는 테스 펠릭스는 관객들의 호기심을 통해 멈추지 않는 플라스틱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After a big storm, a local artist Tess Felix went down to the beach only to discover plastic debris covering the whole shoreline. Realizing the gravity of plastic pollution in the ocean, she started creating vibrant portraits of people she admires out of abandoned plastic to spark conversations around the issue.

바다로부터, 거듭나다

Resurrection Artist



Scott Fitzloff

22min | 2021 | 다큐멘터리 | 컬러 | 미국 | 전체관람가

7.31(일) 13:00 시네마테크관

만약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살아났다면,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바다에서 모든 걸 잃었지만, 다시 바다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매튜의 모습에서 많은 위로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작품

"With the last remaining air in my lungs, I screamed into the ocean..."

" After dying and being brought back to life, Matthew, a doctor and artist realizes that his life forever changed. In his journey to recovery, he explores the ineffable experience through his art, and pushes his physical limit to move beyond consciousness.

2022 국제해양영화제 사무국

운영위원장	조하나
이사	송지선
프로그램 디렉터	윤성은
매니저	김혜원 류연주 임예원
디자인	유현지
자막제작	스튜디오 에스에이지
영상제작	스튜디오 에스에이지
번역	이주은 김은아 강지수 최은영 황순비 오채은 최유진
개막식 연출	이지희
사회	김소이
감수	송지선 조하나
협력업체	필 S&P SENMOONBROS

국제해양영화제
자문위원회

김경선 김기홍 김태희 김한민 도기덕 민경식 박봄 서대정 서종석
이무영 장종수

국제해양영화제
서포터즈3기
〈오션키퍼-온라인〉

메타버스 오션키퍼: 백수연, 이수빈, 최유민, 황다영
SNS 오션키퍼: 김경민, 김지혜, 박준혁, 안다빈, 전초희, 한예린

국제해양영화제
서포터즈3기
〈오션키퍼-현장운영〉

강채완, 고가영, 김동준, 김민형, 김상현, 김성진, 김성철, 김승범,
김은지, 김하은, 김효주, 김희연, 문서영, 박수빈, 양승제, 오채은,
이나은, 이현빈, 조수연, 최유진

Special Thanks

Andrea E. Leland, Cynthia Abbott, Karen Logan, Abbey Dias
Adam Dostal, Anca Damian, Cheryl Dean, Darcy Hennessey Turenne
Ed Harrison, Ewan Blyth, Howard Wesley Hall, Ivan Fund, Jack Gordon
Jan Van Ijken, Josh Cassidy, Louisa Gilbert, Luke Ripley, Maciek Jabłoński
Madeleine Kelly Toomey, Michael Corker, Mike Seely, Nick Dean
Peter Donovan Walker, Philip Hamilton, Philipp Grieb, Robert Fonollosa
Sabrina Inderbitzi, Sarah Baumann, Scott Fitzloff, Serge Raemaekers
Shireen Rahimi, Sian Heder, Sophie Ballagh, 이혁 Lee Hyuk
김대철, 김백수, 김지현, 김현정, 박미라, 박상수, 박숙경, 박지영, 변정환, 송찬호
엄상준, 오동진, 유정임, 이병철, 이선화, 이재현, 전진영, 조유진, 허지원, 홍장근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바다를 지켜주세요

MSC와 함께 바다를 위한 지속가능어업,
책임 있는 수산물 소비문화에 동참해주세요.

CHOOSE



남획과 불법어획을 방지하고
혼획과 해양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지속가능
어업에 부여하는 인증



해양과학기술의 글로벌리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후·해양환경 변화 대응

- ★ 해양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 해양환경 감시 및 관리기술 개발
- ★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 반응 이해 및 대응

해양 전략 자원개발

- ★ 해양생물·유전자원 활용기술 개발
- 전략광물자원 개발역량 확보
- ★ 대양·극한지 탐사와 신자원 발굴

첨단해양공학 기술 창출

- ★ 해양에너지 및 항만·해양구조물 기술 개발
- IoT 기반 해양로봇 및 장비기술 개발
- ★ 해양위성 시스템 및 핵심 활용기술 개발 고도화

해양 영토 관리

- ★ 해양방위 및 안전기술 개발
- 해양 재난·재해 피해저감을 위한 예측기술 개발
- ★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 연구

바다에서 찾는 국민의 행복, 인류에 공헌하는 해양과학기술



프로 서퍼에게 직접 배우세요



송정 바다뷰가 보이는 각종 운동 시설과 깨끗한 샤워실이 있는 서핑 스포츠

송정 서프짐 서핑 아카데미 서핑강습&자유서핑 이용권

선택 1. 서핑강습+자유서핑

강습1시간30분+무제한 자유서핑(서핑보드/웨스트포함)
+기념사진+샤워시설이용
오전11시~오후3시 중 택1

20% 할인가
4,800원 (60,000원)

선택 2. 서핑장비 종일렌탈권

시간 무제한 서프보드+웨스트 렌탈+샤워시설이용

2,000원 할인가
28,000원 (30,000원)

★환불정책 및 주의사항

1. 서핑 입문 강습을 받지 않으신 분은 안전을 고려해 장비렌탈권 이용이 불가합니다.
2. 풍랑주의보 및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인한 강습 취소 시 전액 환불드립니다.
3. 단순 예약취소 및 환불은 예약일로부터 7일전까지 100%환불,
5일 전까지 80% 환불,
1일 전과 당일 취소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4. 단체 및 가족(유소년) 레슨은 문의바랍니다. (010-4344-6635 서프짐)

서프짐 시설 SURFGYM Facilities



<음료바 Drink Bar>



<실내 강습/ 운동 시설 Gym>



<장비보관 Storage>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SONITE

Husk™

농업에서 제분 공정의 일부로 버려진
벼 껍질(왕겨)로 만들어져,
내추럴한 질감과 색감이 특징입니다.



Cocco™

가공 과정에서 버려지는 코코넛 껍질의
섬유 조직을 활용하여
유기적인 질감이 살아있습니다.



Talay™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조각들이
무작위로 응고되어 발생하는
드라마틱한 무늬가 특징입니다.



부산 비즈니스의 중심지 센텀시티에 위치한 위더스비즈니스센터

위더스 비즈니스센터, WITHUS BUSINESS CENTER는 1인기업과
개인사업을 준비하는 국내고객 및 국내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계
기업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객의 열정과
꿈에 도움을 드리는 부산 최고의 비즈니스센터입니다.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 1로 9, 롯데갤러리움센텀 e동 206호		
전화번호	051-7111-8282	팩스번호	051-7111-8484
e-mail	withus@withusbizcenter.com		